

##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들의 독서실태조사

〈한국교원대〉 배 흥 식.

대학의 기능과 대학교육의 목적은 교수와 학생간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실내에서의 전수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강의외에 학구활동, 예술활동, 봉사활동, 자치활동 및 각종 씨클활동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식과 교양을 기르게 되며 특히 독서활동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인격을 도야하고 개성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의 흥수를 이루는 매스매디어 중에서도 인쇄매체를 통한 정확한 정보의 수용은 대학인의 자세이며 의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정보 수용 방법은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독서를 통해 넓고 풍부한 생활경험을 흡수하고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조사의 내용은 독서목적에 관한 것, 독서환경에 관한 것, 독서생활, 독서습관, 독서경향, 기타 도서관 이용목적과 독서회 참석여부 등에 관한 것 등이다.

먼저 독서목적에 관한 것으로서 독서개념에 대한 설문결과로 독서의 습관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86%) 생각을 갖고 있다. 독서목적에 대하여는 책을 읽는 목적을 ① 교양을 얻는데 도움이 되니까 ②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니까 ③ 즐거움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니까 ④ 학과공부에 도움이 되니까의 순서로 나타냈다. 여가이용현황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친구나 선후배등과 어울려 지내는것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교육 실시에 대한 의견으로는 84%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또 학생들이 독서교육이나 독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67%는 받은 경험이 없고 33%가 경험했다고 나타냈다.

두번째는 독서환경에 관한 것이다. 연간 구입하는 도서권수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5~10권 정도를 구입하는 학생이 74%로서 가장 많은 편이고 20권 이상을 구입하는 학생은 14%로서 낮은 편이다. 독서장소는 ① 기숙사 ② 도서관 ③ 집 ④ 강의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교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66.7%라는 다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책을 읽는다고 답하고 있다. 독서저해요인으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세번째는 독서생활에 관한 설문이다. 독서시간에 대하여 독서가 습관화가 된 사람은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고 할 수 있는데 본교생의 독서생활을 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하루에 1~2시간(91.5%)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한달에 1~2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으며 1개월에 6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답변한 학생은 전체의 7%에 불과할 때 학생들의 독서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수가 있다. 독서시기는 겨울 방학중에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서선택 기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 혹은 친구 등의 권유에 의해서 읽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네번째 독서습관에 관한 것으로 독서방법은 차근차근 생각 해가면서 읽는 정독형 64%나 돼 대부분 정독을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중의 증상은 독서가 마음같이 되지 않는다가 45%, 아주 열중한다가 29%, 꾀로나 짙증이 난다고 호소하거나 내용파악이 힘들다는 학생은 10% 미만이다. 독서기피증이라 해도 좋을 이런 학생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독서지도시 지도과제로 삼아야 할 문제이다. 독서노력으로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29%로 제일 많고 명저 및 양서의 해설을 읽거나 스스로 독서에 대한 동기붙임을 하는 노력은 긍정할만 하다. 독후처리는 책을 읽은 후에 내용이나 생각을 기록하는것 보다는 읽는 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단수처리를 하거나 읽은 내용을 이야기 하는 정도로 끝내고 있다.

다섯번째는 독서경향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문학부분의 책을 제

일 많이 읽고 있으며 그 다음이 철학부분, 사회과학, 역사부분의 순으로 많이 읽고 있다.

기타, 독서회, 독서토론, 독서발표에 대한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독서회 참석이나 독서토론 등의 경험이 없는 학생이 58%로 무관심한 편이다. 도서관이용 목적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간다는 학생이 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과공부를 위해, 독서를 하기위해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교생의 독서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서목적** —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독서를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양을 얻고 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해 독서를 한다고 했다.

**독서환경** — 본교생의 경우 대부분 기숙사에서 책을 읽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은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독서생활** — 한달에 한두권, 하루에 한시간 정도 책을 읽고 있으며, 책을 선택하는 방법은 주로 친구·선배의 권유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습관** — 정독 위주의 독서는 하고 있으나 독서에 대한 첨중력이 저조한 편이다. 독서후의 기록도 철저한 편이 아니며 읽었다는 상태에서 끝맺음을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서경향** — 문학에 관한 도서를 가장 많이 읽고 있고 철학·사회과학·역사순으로 많이 읽고 있으며 과학방면의 서적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현상들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독서에 대해 지도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약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에 언급해 본다.

- ① 대학내에 학생 독서지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 분야에 걸쳐 교수로 임명하고 교내에서 이루 어지는 제반 독서활동의 지도를 담당해 가도록 한다.

- ② 도서관 자료 이용법 등 도서관학에 관한 교양과목을 새로 배정하여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율을 높이고 독서의욕을 고취 시킬수 있도록 한다.
- ③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독서활동 즉 독서회를 조직하여 독서토론·독서발표 등을 통해 독서의욕을 촉진시키고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도서관에서는 group study 실을 제공하여 이러한 독서클럽이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다.
- ④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편리하게 하여 주고 부족한 도서를 보완해주는 한편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도서관소식” “도서안내” 등의 책자도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 ⑤ 도서관에 독서상담에 응할 유능한 Librarian을 배치하여 도서대출이라는 소극적 서비스를 탈피하는 방안이 필요 하겠다.
- ⑥ 매년 실시하는 도서관주간, 독서주간 행사를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 치를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독서의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